

## 독립 문예지 속성과 모델 연구 : 2018년 국내 독립 문예지 활동을 중심으로

공병훈\*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문예지 생태계는 창작자와 평론가, 독자,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이다. 이 논문은 독립 문예지들의 속성과 활동 특징과 패턴, 모델을 연구한다. 분석 결과, 첫째, 독립 문예지는 소집단 하위문화로서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 정체성을 지닌다. 둘째, 전통적 문예지와 출판 자본 기반 문예지의 대안으로서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운영으로 활동하며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 방식에서 독창적이다. 셋째, 웹진과 소셜 미디어 통한 소통, 장르와 미디어 융합을 통한 독자 접점 확대 등 기술과 사회 변화 환경 적응에 적극적이다. 넷째,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성, 출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자본·기획·창작·생산·유통에서의 독창성, 기술 변화 적응성 등의 독립 문예지 속성은 다양한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문학 공론장을 재구성하며 기술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문학 플랫폼 모델로서 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키워드 : 독립 문예지, 하위문화, 문학 플랫폼

---

\* hobbits84@gmail.com, 제1저자

\*\* lmw@news-paper.co.kr, 교신저자

## 1. 머리말

1919년 『창조』 등장 이후 문예지는 창작에 뜻이 맞는 동인들이 모여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한국문인협회 출신이 주도하는 월간지가, 1970년대에는 4.19세대가 주도하는 계간지가, 1980년대에는 문학적 당파성을 강조하는 무크지가, 1990년대에는 거대 담론들이 무너지고 출판사 중심의 계간지가 문예지의 주된 형태였다. 문예지는 유사한 문학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문학 커뮤니티로서의 문학동인(장용호 외, 2012)을 구성하여 동인잡지(同人雜誌) 창간을 준비하는 형태로 시작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문예지들은 몇 개의 특집 쪽지, 소설, 시, 작가론, 문학평론, 인터뷰, 대담, 좌담, 서평, 촌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은 문예지의 전통적인 기획 형태였다(공병훈 외, 2018, p.6).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동인을 구성하여 문예지를 발간하는 문인들의 방식과 다르게 출판사에서 편집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편집위원 체제’라고 정의한다. 편집위원 체제는 편집진과 문학적 정체성보다 대량 시장을 목표로 하는 ‘출판 자본’이 주도한다고 평가된다. 문예지의 편집위원과 출판사의 결합은 문예지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며 전통적 기획 구성과 종이책 문예지 출판 방식을 취하하지만 대부분 새로운 독자를 창출하는 유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2010년대 이후 종이책 출판산업의 축소와 함께 문예지 독자들도 줄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현상은 독자의 층이

엮어진 ‘고립된 창작자 중심의 문예지 생태계’가 형성과 관련된다 (최강민, 2010, pp.42-43)<sup>1)</sup>

그럼에도, 장르 소설을 중심으로 16년째 문학 웹진 『거울』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험성과 전위성을 지닌 독립 문예지들인 『소녀문학』, 『영향력』, 『젤리와 만년필』 등이 잇따라 창간되고 지난 8월에는 『청문회』, 11월에는 『토이박스』, 12월에는 『그라네이드』 등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독립 문예지를 출판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의 질적 변화와 2010년을 전후한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젊은 세대는 문예지보다 단행본을 선호하고 종이책보다 웹진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전자책, 웹툰, 웹소설, 웹진, 웹콘텐츠, 앱북 같은 웹과 모바일 기반 출판인 디지털 퍼블리싱(digital publishing)(공병훈·조정미, 2018)의 확산은 창작자와 독자, 그리고 출판사와 문예지 관계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게 하는 현상들을 만들고 있다.

이 연구는 독립 문예지들의 다양한 문학 활동과 사례들이 문학의 생태계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전형적 문예지와 다른 기획과 내용으로 또는 다른 예술이나 미디어 장르와 융합하는 등 독립 문예지들에 대한 분석은 어떠한 문학 생태계 조건에서 출현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이 연구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자기 증식하는 가치 운동의 주체'라는 자본에 대한 관점(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 capitalism)에서 자본과 상업화에 독립적인 독립과 인디에 대한 대책 개념으로 '출판 자본'을 정의한다.

독립 문예지가 어떻게 활동하며 어떠한 속성과 패턴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독립 문예지의 속성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 문예지와 전통적·전형적 문예지가 상호작용하며 선순환 체계를 위한 탐색 작업이 될 수 있다.

## 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 1) 기술 혁신 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기술과 N스크린 콘텐츠 출판 환경이다. 웹과 전자책이 HTML5과 이퍼브3.0을 표준으로 적용하면서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기반의 N스크린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책과 웹이 융합하고 분기하는 현상은 웹툰과 웹소설 출판 활성화의 트렌드로 드러나고 있다.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댓글을 통해 독자와 저자는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와 소설에 대해 별점을 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 확산할 수 있다. 독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전통적 만화와 소설과는 다른 현상이다. 또한 독자들은 단순한 독자 차원에 머무르는 않고 스스로 만화와 소설을 창작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웹툰과 웹소설은 작가 등용문인 동시에 강력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조정미 등,

2017, pp.177-178). N스크린 체계 확산은 독립 문예지 디지털 퍼블리싱 활동의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웹진 방식의 문예지 출판과 모바일 웹을 통한 독자 참여 현상과 연관된다.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출판 가치 네트워크의 주요 참여자로는 창작 생산에서 창조적 사용자, 저자, 출판사, 제작사를 들 수 있고, 플랫폼 유통에서 콘텐츠 플랫폼, 오픈 마켓, 서점 등이 있다. 사용 영역에선 독자와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출판 생태계가 맞이할 가장 큰 변화는 출판사라는 공급자 주도형 시장에서 사용자, 즉 독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변화이다. 매스미디어 광고와 서점을 통해 책을 구매하던 독자들은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원하는 콘텐츠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매·확산시키고, 저자에게 투자하고 함께 기획하고 때로는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저술하는 존재로 탈바꿈하고 있다(공병훈, 2018, pp.29-30).

취미와 관심을 공감하는 사용자들과 함께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한다. 이 활동은 사용자들간 관계를 넘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자들과 직접 관계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메시지 교환, 크라우드 펀딩<sup>2)</sup>, 출판 활동 격려와 지원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저자의 창작과 저술을 직접 돕거나

2) 2019년 1월 현재 국내 콘텐츠 창작과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로서는 스토리펀딩(Storyfunding)과 텀블벅(tumbbug)이 있다. 국내에서 2014년 9월 29일 다음카카오에 의해 사용자 요구 뉴스 연재 방식의 뉴스 펀딩 방식으로 스토리펀딩이 처음 시작되어 콘텐츠 연재와 예술과 기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텀블벅은 예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을 위한 펀딩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판과 문예지 창간과 출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획과 창작에 조언하는 협업자로서 활동한다. 사용자들의 활동은 출판사 중심의 소셜 커뮤니티 활동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책에 대한 자발적 홍보와 출판사의 부정적 이슈에 대해 비판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장용호 등, 2013, pp.184-191).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저자들은 자신의 계정과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판사 매개 없이 저자와 독자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독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크라우드 펀딩 출판에서 독자들과의 협업 관계를 형성하여 창작과 집필을 완성시켜 나간다. 저자들은 독자의 니즈와 독자와의 협업에 기반한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출판 모델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콘텐츠와 증강현실 책, 웹 출판과 같은 종이책 저술 범주에서 벗어나 분야와 미디어가 융합되는 환경에서 콘텐츠와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창작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술적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공병훈, 2018, p.31).

출판사는 다양하게 출현하는 창작과 생산 주체들과 어떻게 협업하며 다양한 형태로 가치를 뺏고 융합되는 콘텐츠 출판을 주도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가치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출판사 역할은 다양한 참여자들 또는 소셜 커뮤니티들과 개방적 협업을 주도하면서 종이책을 넘는 콘텐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종이책, POD, 이퍼브3.0, 오디오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 출판에서 편집자 역할은 PD(product director) 역할과 서점과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에이전시(agency) 역할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병훈, 2018, p.31).

전통적 출판의 선형적 출판에서 가치사슬의 선형적 관계는 개방적 협업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출판사는 기획과 편집이라는 출판사 고유 역량을 종이책 출판에서 벗어난 콘텐츠 기획, 편집, 에이전시 역량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콘텐츠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소비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출판사 스스로 마이크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PR과 마케팅, 소셜 커뮤니티 전략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공병훈, 2018, p.32).

출판사 주도의 전통적 문예지들은 ‘선형적 가치사슬 체계’로서 폐쇄적이며 자본과 상업화의 구조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창작자와 독자를 주요 참여자로 문학 작품을 둘러싼 플랫폼으로서 활동하는 문예지들은 참여자들이 웹과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며 커뮤니티적 관계를 형성하며 투자, 창작, 유통, 사용의 ‘개방적 가치 네트워크’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폐쇄적 체계와 개방적 체계는 문학 생태계와 독립 문예지 연구의 중요 대상이 된다.

## 2) 문학 생태계의 질적 변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예연감 2017』에 의하면 2016년에 발간된 문예지 수는 670종에 1,853권이며 14만864편의 작품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세계의 문학』, 『문예중앙』, 『작가세계』 같은 전통과 내력이 있는

문예지들도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3)</sup>

2016년 발간된 60종의 문학잡지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는 시로 489종, 73.0%에 이른다. 수필/산문을 주로 다룬 잡지가 91종으로 13.6%, 평론/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76종, 11.3%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소설이 대표 장르인 잡지는 13종으로 1.9%를 차지했고, 희곡/시나리오를 주로 다룬 잡지는 발간 실적이 없었다(『문예연감 2017』, p.120).<sup>4)</sup>

웹진(webzine)은 월드와이드웹(WorldWide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서 웹에 HTML 형식으로 개발되어 공개되는 잡지이다. 종이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잡지 내용을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잡지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발전하였다(Wikipedia : Online\_magazine). 웹진은 HTML5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나 소셜 미디어에 최적의 형태로 적응하여 서비스되거나 공유, 확산될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을 지닌다. 웹진이 전통적인 신문, 잡지, 방송과 다른 속성은 웹에 기반하면서도 고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광고 효과를 제

3) 발간에서 겪는 어려움 대한 조사에서 문예지들은 게재 원고료 부담 25.3%, 정기구독자 확보 20.1%, 인쇄 제작 및 유통 비용 17.9%, 판매 부진 및 재고 문체 14.5%, 광고 게시 및 홍보 방안 10.5% 순의 의견을 보였다(공병훈 외, 2018, p.47p).

4) 한 해 동안 발간된 1,853권의 문학잡지의 대표 장르에 따라 살펴보면 시를 주로 다룬 잡지가 1,330권에 달하며 71.8%를 차지했다. 이어서 수필/산문을 다룬 잡지가 288권으로 15.5%, 평론/인문연구서를 주로 다룬 잡지가 197권으로 10.6%로 나타났다. 문학잡지에 게재된 작품의 수로 보면, 총 140,864편 중 시가 104,359편을 차지하며 전체 작품 수의 74.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필/산문이 24,527편으로 17.4%를 차지해서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희곡/시나리오 작품이 7,508편으로 5.3%를 차지했다. 소설은 3,393편으로 2.4%, 평론/인문연구서는 102편으로 0.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예연감 2017』, p.120).



공하며 작가, 웹진 운영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추월하여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웹사이트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한 게재와 실시간성으로 오프라인 잡지의 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이호선 외, 2007, pp.169-170). 이 특성들은 웹진이 하위문화(subculture)의 독립적 미디어로서 활용도와 가능성을 높여 준다.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들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공유하며 학습하고 평가되는 집합적 과정을 수행한다. 전통적 창작 방식에서 창작 노하우의 암묵적 지식으로서의 속성은 작가 지망생의 창작 학습이 폐쇄적인 강한 연대 공동체에서의 습작과 평가, 모방과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작가 지망생들의 문학 동인(同人)들의 문예지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방식과 달리 디지털과 인터넷의 기술 혁신이 조성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와 창작 방식의 변화는 창조적 생산의 민주화(democratizing of creative production)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드러내고 있다(장용호 외, 2012, p.206).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들에 의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노하우와 지식을 배워 체득하여 다시 창작에 적용하는 과정은 전형적인 암묵적 지식의 학습 과정이며, 이 집합적 상호작용 패턴을 지닌 창조적 공유지(creative commons)로서 문장(Munjang)<sup>5)</sup>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창조적 사용자 커뮤니티의

5) 온라인 문학 커뮤니티인 ‘문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문학 생산자들에게는 창작과 발표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새롭고 다채로운 문학콘텐츠를 꾸준히 서비스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사이버문학광장웹진 : <http://www.munjang.or.kr>).

적응과 진화의 과정이며, 작품 아이디어와 창작 노하우의 전달과 공유를 통한 그리고 커뮤니티의 집합적 작업이라는 저비용의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다(장용호 외, 2012, p.208).

웹진 형태를 띠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모 마당과 창작 교육 등의 활동을 온오프라인 융합적인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디지털과 인터넷 환경의 활성화와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행위/상호작용과 관계된다. 이 문학 공유지는 심사위원, 작가, 작가 지망생, 문학 애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호혜적 상호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네트워크 환경’과 ‘창작과 작품 유통 방식’, ‘문학을 수용하고 참여하는 환경과 수단’의 변화는 문학 작품을 생산, 공유, 평가, 학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작가, 작가 지망생, 문학 애호가를 연결하여 집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결국 다양한 문학 창작과 수용 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창조적 공유지가 확장되며 작가 지망생과 문학 애호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장용호 외, 2012, pp.204-205).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커뮤니티적 관계라는 특성과 창작과 문예지 출판 과정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전달, 공유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문예지는 커뮤니티적 속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예지는 독자에 의해 구매되어 읽히는 미디어로서 공유된다. 문예지가 창작자들과 수용자들의 문학 공론장(public sphere)이자 공공재로서의 속성과 시장에 공급되어 구매되는 미디어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뜻이다.

### 3) 독립 문예지와 하위문화

독립 문예지 현상과 사례들은 전체 문화(total culture)로서의 문학 생태계의 활동 내부에 존재하면서 전통적인 문예지 활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여 활동과 출판 방식이나 경영과 유통 방식이 독창적이며 동인 커뮤니티라는 소집단의 문화인 하위문화(subculture)의 역할을 보여 준다. 이 연구는 동인 커뮤니티의 속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기획, 창작, 생산, 유통, 독자들과의 소통에서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문예지를 독립 문예지로서 정의한다(공병훈 외, 2013, pp16-19). 독립 문예지 현상은 2019년을 기준으로 수많은 독립 출판사, 독립 잡지, 독립 서점이 운영 중이며, 독립 문화로서 영화·음악·게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독립과 인디(indie)는 ‘independence’의 준말로써 영화와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로 상업화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부류를 말한다. 메탈이나 힙합 같은 구체적 장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창작성, 자율성에 치중하여 활동하는 대중문화의 아웃사이더를 통칭한다. 인디 영화(independent film)라고 하면 영화 제작사의 자본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제작하는 독립 영화를 말한다.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디는 다양한 장르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출판과 잡지, 그리고 문예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산업에도 존재

한다(유승호, 2000, pp.50-52).

하위문화 개념은 사회 안의 소수(또는 하위) 집단의 가치, 신념, 태도,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가리킨다. 원래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에서 비행(非行) 청소년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전체 문화 또는 주류 문화와는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르다. 청년 문화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지만 종족, 젠더(gender), 성적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sup>6)</sup> 하위문화의 중요성은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위문화적 방식은 이 문화가 특히 계급의 선에 따라 분화되는 것을 강조한다. 하위문화는 지배 문화의 저항의 형태를 전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서 지배적 문화의 모순적 요구를 해소하거나 저항하며 자신의 고유한 결속감과 정체성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공간을 형성한다.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게 되며, 언어·복장·외모·음악·행동방식 등에서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한층 강화하려 한다(Edgar, et al., 2007).

인디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진전과 다르게 독립 문예지에 대한 본격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국내에서 독립 문예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90년대 부터이다. 출판 시장이 확장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문학 단행본 시장을 확보하

---

6) 하위문화의 주체는 계급·인종·세대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소집단이며, 사회 구조 안에서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계급적으로는 하층 프롤레타리아, 세대적으로는 청소년층, 성애적으로는 동성애자, 인종적으로는 유색인종 등이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담당 주체이며, 이들에 의해 노동자 문화, 청년문화, 소수민족 문화 등 하위문화의 구체적인 범주들이 생겨나게 된다.

기 위해 마케팅 전략으로 문예지를 발간하고 스타 작가를 발굴하여 베스트셀러를 생산하는 구조를 최강민은 출판 자본으로 설명한다. 그는 출판 자본의 뒷받침 없이 문학적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예지를 독립 문예지라고 정의한다(최강민, 2010, pp.42-43).

이 연구는 문예지의 역사적 고찰과 하위문화와 인디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문학적 정체성을 지니고 출판 자본과 독립되어 동인 커뮤니티와 창작자,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문예지를 통해 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독립 문예지로서 정의한다. 동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소집단 문화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한 하위문화이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적 속성을 고려한다.

###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8년의 국내 독립 문예지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연구방법(case study method)을 사용하였다. 사례 커뮤니티들의 특징과 패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다중사례(multiple-case) 연구 방법과 커뮤니티들의 서로 다른 참여 행위자들을 분석하는 복합단위 연구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 범주와 함께 하위 분석 단위를 포함한 설계를 사용했다(Yin, 2008). 변화하는 기술 환경의 미디어와 문학 생태계에서 독립 문예지와 동인 커뮤니티의 구체적 활동과 현상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이론화를 위해 이 연구는 현장 밀착 이론

생산 활동(theory-generating activity)을 지향한다. 독립 문예지와 동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모델에 대해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이내믹한 현상과 독립 문예지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연구 문제들을 제시한다.

- 연구 문제 1 : 독립 문예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 연구 문제 2 : 독립 문예지가 기술 변화 환경의 미디어와 문학 생태계에 적응하는 활동은 어떠한 특징과 패턴을 지니는가.
- 연구 문제 3 : 독립 문예지들이 지니는 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가.

사례조사방법론에 기반하여 9개 독립 문예지를 사례로서 선정하였다. 첫째,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출판사 편집위원 중심이 아닌 문학 동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하며,<sup>7)</sup> 둘째, 문학 동인 커뮤니티가 전통적 문예지들과 차별화된 자신들의 문학과 문예지 정체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며, 넷째, 문예지를 둘러싼 활동이 출판 자본의 이윤 추구보다 창작자와 독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넷째, 2018년을 기준으로 문예지를 출간했거나 클라우드펀딩,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문예지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독립 문예지 사례들로 선정하였다.<sup>8)</sup>

7) 창비의 『문학3』, 민음사의 『릿터』와 『크릿터』, 은행나무의 『악스트』 등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신생 문예지로서 독립 문예지의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8) 조사 결과, 청년문학 『부도심』, 대구지역 청년 예술가 포스터형 잡지 『#anothers』, 『도이박스』, 청년문학 계간문예지 『청년들의 문학상회』 등 2018년부터 동인

<표 1> 사례연구 대상 9개 독립 문예지

문예지명	동인과 문예지 정체성	비고
거울	환상문학 웹진	장르 소설 중심으로 웹진 발행
문화 다	비판적 문화공동체 웹진	평론 중심 평론가들에 의해 웹진 형태로 문예지 발행
모티프	비주얼문예지	사진과 문학 결합한 장르간에 융합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문예지 기획
베개	평화롭고 느슨한 위계 없는 문예공동체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비등단 작가 포함한 활동
세상의 모든 시집	기존 문단 탈피와 시 대중화를 위한 플랫폼	독자들의 시를 게재하는 웹진 형식의 플랫폼, 종이 문예지 『세상의 모든 시』를 별도로 출판 중임
소녀문학	페미니즘 사회운동 및 담론을 주제로 함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시와 소설, 사진과 그림으로 계간지 구성
영향력	일반인 일과 끝난 후 글을 쓰는 행위로서의 창작	일반인 소설 중심.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젤리와 만년필	젠트리피케이션 주제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기반 활동, 주 거문제 현장에서 동인 결성
텍스트릿	장르문학 평론	장르문학 연구자 모임 중심. 웹사이트를 통한 글쓰기 활동 중심

이 사례 연구는 첫째, 언론과 미디어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둘째, 관련 웹사이트 활동과 웹페이지 자료, 소셜 미디어, 텀블벅 페이지에 대한 직접관찰, 셋째 독립 문예지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등 3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독립 문예지에 대한 직접 관찰과 문헌자료를 분석한 사례 독립 문예지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독립 문예지 실무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실행하

커뮤니티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2019년 2월 기준으로 창간 준비중이거나 문학 커뮤니티 활동의 시작 단계이므로 연구 사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였다. 심층면접의 질문은 문예지 창간 동기, 운영 현황, 구성원 특징, 작가와 독자의 관계, 독립 문예지의 활동 모델, 전통 문예지와 문단에 대한 의견, 문예지 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등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완 질문은 이메일과 통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참여자와 관련 독립 문예지와 특성 내용은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심층면접 참여자와 담당 업무

순서	나이	성별	관련 독립 문예지	참여자 특성 내용
A	35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B	37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C	34	녀	거울	웹진 운영자, 소설가
D	29	남	모티프	모티프 발행인, 시인, 대학생
E	23	녀	모티프	모티프 포토디렉터, 대학생
F	25	남	모티프	모티프 마케터, 대학생
G	54	남	문화 다	문화 다 편집인, 평론가, 교수
H	57	남	베개	베개 편집위원, 시인
I	62	남	세상의 모든 시집	운영자, 시인
J	23	녀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K	24	녀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L	22	남	소녀문학	동인, 대학생, 인권운동가
M	53	녀	영향력	편집인
N	30	남	젤리와 만년필	동인, 출판편집자

#### 4. 분석 결과

##### 1) 사례 독립 문예지들의 활동 방식과 특성



사례 독립 문예지들은 작은 규모의 문학 동인과 편집위원 활동에 기반하며 웹진(거울, 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텍스트릿)이나 종이책 문예지(모티프, 배개, 영향력, 세상의 모든 시, 소녀문학, 젤리와 만년필)를 출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 문예지들은 장르 소설(거울), 장르문학 비평(텍스트릿), 평론 또는 시 중심(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비전업 작가와 일반인 작품 참여(거울, 배개), 페미니즘(소녀문학),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젤리와 만년필) 등의 특별한 정체성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독립문예지들의 정체성은 <표 3>의 창간 동기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에 직접 드러난다.

<표 3>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거울	인터넷 공간에 장르 단편 소설을 쓰고 올리고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초대 편집자와 아는 분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 함께하는 편집위원 체제로 하고 있다. 순전히 자원체제로 운영된다.
모티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젊은 문학인들이 하는 고찰이라 생각했다. 패션과 문학을 접목시켜 문예지를 독자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했다.
배개	등단제도가 문학하는 사람들을,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했다. 글은 잘 쓰는데 등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다.
소녀문학	문학과 독립출판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쿼어 페미니즘 잡지 출간으로 출발했고, 몇 차례 발간을 해오며 그 안에서도 방향성이 변화해갔다.
영향력	소설 한 편과 사진을 실은 얇은 책을 독립출판한 일이 있었고 공모전이나 신춘문예가 아니라도 책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젤리와 만년필	임대 문제를 겪고 있는 헌책방에 연대하고자 방문했다가 문학에

만년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도시 문제와 페미니즘을 다룰 출판사를 꾸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텍스트릿	장르문학이 연구를 하더라도 발표할 곳이 없었다. 젊은 인문학자 모임에서 웹소설, 장르소설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 모인 세 명이 집담회를 열어 10여 명 정도를 모아 시작했다.

『젤리와 만년필』은 동지내몰림[gentrification] 현장에서 만난 세 사람이 창간을 결심한다. 청년 주거 문제, 동지내몰림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고양이의 시선을 차용하는 등 젊은 세대의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인쇄비용을 확보하여 시와 산문, 소설, 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연 3회 발간한다.

온라인 웹진을 통해 출간하거나 사진과 문학 작품을 융합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모티프)하거나 평론 주제 문예지를 제외하면 사례 독립 문예지들 대부분은 ‘등단제’<sup>9)</sup> 폐지 내지는 등단제를 중시하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자유로운 투고 방식으로 문예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업 작가와 평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창작에 참여시키며 작가들이 작품을 평가(거울)하고 학습 모임(텍스트릿)을 통해 교류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울』이나 『소녀문학』, 『젤리와 만년필』이나

9) 등단은 시/시조이나 소설, 희곡, 동화, 평론 작품을 문학 잡지에 발표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작품을 출판해서 문학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신문사의 신춘문예, 문예지 게재, 문학상 공모 등을 통해 등단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2019년 언론사 신춘문예를 살펴보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전국 25개 언론사에서 실시되어 등단 작가의 수는 106명이었다. 그중 소설가 26명, 시인 23명, 수필가 5명, 평론가 10명, 동화작가 17명, 동시인 6명, 시조시인 10명, 희곡작가 7명, 시나리오 작가 2명 등이다. 투고된 작품의 총 편수는 64,951편으로 이중 시는 44,237편이었다(한송희, 2019).

『텍스트릿』처럼 다루는 주제와 정체성이 분명하면서도 문예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자발적인 협업과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거울』은 장르문학 작가들의 동인 커뮤니티 형태로 활동하면서 웹진을 장르문학 작가를 육성한다. 전통적 소설과 구분되면서 웹소설과도 구별되는 장르문학의 몇 안 되는 작품 발표 채널로서 16년째 운영 중이다.

출판 자본에 기반하지 않은 문예지 출판 활동이기 때문에 분석 사례들 중 웹진 방식이 아닌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문예지들(모티프, 베개, 영향력, 세상의 모든 시, 소녀문학, 켈리와 만년필)은 모두 크라우드펀딩 활동으로 필요한 자본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텀블벅 펀딩 참여자에게 후원에 보상(reward)<sup>10)</sup>으로서 문예지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독특한 출판·경영·유통 방식을 보여준다. 종이책 문예지를 출간하는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수 독자를 위한 소량 출판과 유통, 이상이나 취향에 기반한 기획·편집·디자인·제작의 특성을 지니지만 일반 상업 출판물인 문예지와 비교하여 완성도 높은 수준이다.

## 2) 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종이책 문예지 출판을 둘러싼 미디어 생태계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적 기술이 본격화 하는 환경에서

10) 텀블벅(tumblbug)에는 누구나 창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려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원자는 후원의 보상으로 차후 프로젝트 완료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받는데 후원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텀블벅은 후원금 마련에 성공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유지 비용으로 후원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문예지 활동의 본질적 변화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웹, 모바일, 소셜 미디어는 작가와 독자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활동과 형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활동이 가능한 기술적 환경을 제공했다.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기술과 N스크린 콘텐츠 출판 환경은 독립 문예지들이 컴퓨터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독자와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독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분적이던 전통적 문예지들과 다른 특성이며 컴퓨터를 통한 웹이 보편화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독립 문예지의 주요한 특징으로 드러났다. 이 특징들은 <표 4>의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표 4> 기술 환경과 문예지 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겨울	웹진의 장점은 독자들이 작품이나 기사를 선택하여 개별 소비가 가능하며, 웹에 게시되기 때문에 SNS 등을 통해 홍보가 되면 독자의 즉각 접근이 가능하고, 업데이트 후에 교정과 피드백 반영이 용이한 점 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이북리더기 등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기사 문장, 단락 등의 형태가 서적 잡지와 방향성이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서적 잡지와 달리 수시 업데이트의 묘미를 살리는 운영 역시 가능하다.
문화 다	종이 매체로는 확장 한계를 느꼈고, 인터넷에 전문성 있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리라 생각해 웹진을 시작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운영했다. (...)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제목과 한두 단락 올리는 형태다. 페이스북은 링크 형태로 운영한다.

모티프	웹진이 문학인가 아닌가라는 고민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 플랫폼 콘텐츠를 전환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배경	홍보, 독자와의 소통, 크라우드 펀딩 등 독립문예지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SNS의 환경의 존속과 더불어 독립문예지는 계속 새로이 시도되며, 이런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상의 모든 시집	『모든 시』에 수록한 매호 작품은 본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시를 읽어주는 여자』와 연계, 방송하여 종이책뿐만 아니라 육성 낭송으로 개별적 파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팟캐스트 『시를 읽어주는 여자』는 시인들과 독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 종이책과 함께 우리 시단에 새 바람을 (...).
영향력	인스타그램 중점이고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책에 대한 내용을 올린다. 긴 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텍스트릿	영상, 접속 시대에 텍스트가 붙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렇기에 웹소설, 장르문학을 ‘텍스트의 승리’라 말하는 건 포장이고 수사이다. 왜 텍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행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거울』, 『문화 다』, 『세상의 모든 시집』, 『텍스트릿』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웹진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웹진 문예지 발간과 작품 투고와 게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문예지로 엮어 게시하는 방식으로 출간된다. 『거울』은 구성원들이 상시 올린 글을 매월 월간지로 엮어서 게시한다. 『문화 다』도 웹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월간지 웹진으로 게시한다. 『세상의 모든 시집』은 구성원이 자신의 시를 게시하다 시집으로 엮는 방식이며 종이책 문예지 『모든 시』를 별도로 출간한다. 『텍스트릿』은 동인들이 웹진에 글을 올려 게시하는 웹진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별도 계간지로 묶어 게시하진 않는다.

사례 대상인 독립 문예지들은 대부분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카카오토티, 스팀잇(Steemit)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셜 미디어 채널들은 문예지 발간 소식, 웹진 문예지에 실린 작품이나 평론 또는 관련 홍보 글, 문학과 문화 관련 뉴스, 책 소개, 동인 작가 활동 소개, 행사 안내, 투고작품 심사, 크라우드펀딩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거울』 페이스북 페이지는 580명의 좋아요와 600명의 팔로워를, 트위터는 12,596개의 트윗과 2,186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었다. 『문화 다』는 다음 블로그에 웹진 내용과 관련 포스트를 381개 게재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는 3,876명의 좋아요와 3,877명의 팔로워를 지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시출판 플랫폼을 지향하며 유명도나 문단과 관계없이 작품을 수용하며 활동하고 있다. 『문화 다』는 문화다북스라는 출판사에 의해 비판적문화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월간 웹진을 운영 중이다. 글을 먼저 받아서 게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필자가 제공하는 글을 수시로 받아 나중에 월간으로 발행되는 웹진을 운영한다.

### 3) 독립 문예지의 속성과 참여자 활동

<표 5>의 내용과 같이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그리고 독립 문예지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직접 관찰과 심층면접 분석 결과, 독립 문예지들은 문학 커뮤니티

적 특성, 문예지 정체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플랫폼 특성, 문예지 생산과 유통의 차별적 방식,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라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다양한 문예지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문학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표 5> 문예지의 속성과 근거 내용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문학 커뮤니티적 특성	문예지의 역사적 과정(머리말)과 생태계 질적 변화(장용호 외, 2012) 선행 연구와 이론 분석,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 정체성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 직접 관찰(표 1), 창간 동기와 활동 방식 심층면접 내용(표 2),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독립 문예지와 하위문화 이론 분석(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문예지의 역사적 과정(머리말)과 생태계 질적 변화(장용호 외, 2012)
창작자와 독자 중심 플랫폼 특성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 직접 관찰(표 1), 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심층면접 내용(표 3)
문예지 생산과 유통의 차별적 방식	문예지 활동 방식과 특성과 참여자 활동 직접 관찰 내용과 심층면접(표 1, 표3, 표 5),
기술 변화 적응성	기술 변화 환경과 독립 문예지의 활동 관계 직접 관찰과 심층면접 내용(표3, 표5)

연구 사례들 중 텀블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티프』, 『소녀문학』, 『영향력』, 『젤리와 만년필』 등이 종이책 문예지를 발행하고 있다.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공개되는 내용은 문예지의 지향성과 창작자 소개, 기획, 예정된 목차, 책의 레이아웃, 게재될 작품의 내용 일부, 펀딩 목표액, 후원 보상 내용, 일정 계획, 연락처, 창작자에게 문의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예지의 정체성과 활동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사용자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구조이다.

사용자 펀딩 참여 정도가 문예지 발간의 자본과 비용을 마련하고 출간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관계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용자 문학 창작 지원에도 독립 문예지들은 전통적 문예지보다 적극적이다.

<표 6> 독립 문예지 속성과 참여자 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

문예지명	심층면접 내용
거울	웹진 방문자 중 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마추어나 타 장르 글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독자 단편란에서 독자가 작가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곽재식 님이 작가가 되기도 했다. 몇 번 우수단편을 수상하신 후 제의를 해서 필진이 된 분이 굉장히 많다.
문화 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 의사를 타진해 들어오기도 했다. 문은 활짝 개방되어 있다. (...) 콘텐츠가 쌓이고 검색되니 ‘활동하면 팬층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합류한다.
모티프	독자 소통으로는 북페스티벌에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문학주간이나 와우북페, 송도북페 이런 곳에 참여했는데, 판매목적이라기보다 독자 소통이 목적이다. (...)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페스티벌을 열고 오프라인에서 독자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싶다.
베개	베개가 기존 문예지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응모자가 문예지를 쳐다보고 아쉬운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편집진들이 SNS 공간을 여행이나 산책하듯 돌아다니다가 잘 쓴 글을 보면 먼저 말거는 형태로 원고를 모았다. 문예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분야 전문가가 많았다.
세상의 모든 시집	『세상의 모든 시집』은 독자들이 자유롭게 투고하여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다시 종이책 『모든시』에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수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영향력	3호까지는 100% 투고만 받았다. 지금도 기본은 투고인 건 변하지 않는다. 작가분들도 대부분은 서점에 가서 저희 책을 보긴, 인스타그램에서 보셨거나, 글 쓰는 분들 주변에 글 쓰는 사람이 많다보니 친구가 알려준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
-----	--

『소녀문학』은 20대의 편집인들의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출간 비용을 마련하며 오프라인 행사, 좌담회, 워크숍에 적극적이며 문학의 다양성을 위한 소수자의 지면을 표방한다. 『베개』는 소셜 미디어를 검색하며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작가를 발굴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향력』은 일반인이 일과가 끝난 후 글을 쓰는 행위를 의미하는 ‘키친테이블라이팅’을 지향한다. 3개월마다 일반인이 쓴 소설, 시 등을 엮어 발간하는데 일반인들로부터 투고를 받은 작품으로 문예지를 꾸리고 있으며, 3호부터는 이전 투고자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넣고 있다.

『거울』은 문학 예비생과 사용자 문학 창작을 위해 월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객재식 작가처럼 독자로서 웹진 참여와 활동을 통해 전문 작가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사례도 있다. 웹진 『세상의 모든 시집』은 독자들이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는 자기 출판(self publishing) 모델을 운영하면서 종이책 문예지인 『모든시』에 자유롭게 투고하고 할 수 있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걸쳐 연동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 다』는 평론을 주제로 하는 특성에 따라 전문 평론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평론가 예비생과 문학 연구자와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와

웹진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소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독립 문예지는 창작자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와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1990년대 이후 확산된 출판사 주도의 문예지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커뮤니티 관계들을 형성하고 창작자와 독자 중심의 특징과 더불어 예비 창작자와 독자가 전문 창작자로 성장하는 체계(system)가 작동하는 플랫폼의 모델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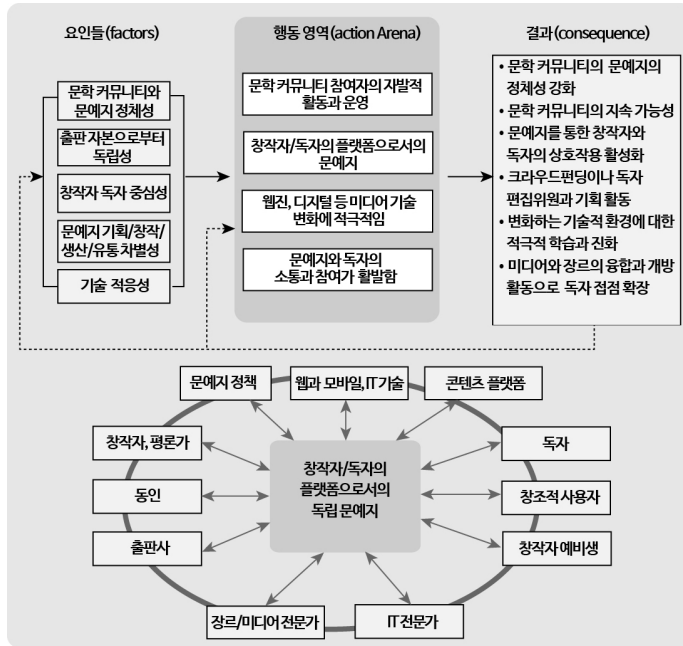
#### 4) 독립 문예지의 모델

사례 독립 문예지들의 속성들이 요인 역할을 하여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운영이 벌어지는 상호작용 행동영역에서 기술 변화에 적극 적응하는 문학 플랫폼으로서 작동한다.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 다시 요인들과 행동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하는 모델(Hess, et al., 2011)<sup>11)</sup>을 <그림 1>로 정리할 수 있다(연구 문제 3).

사례 독립 문예지들의 관찰 결과와 <표 4> 문예지 속성과 근거 내용에서 제시한 속성들(문학 커뮤니티적 특성, 문예지 정체성, 출판 자본으로부터 독립성, 창작자와 독자 중심 플랫폼 특성, 문예지 생산과 유통의 차별적 방식, 기술 변화 적응성)은 <그림

11) 이 모델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와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Open Source Software) 운동과 같은 집합적 행동과 자율적 지배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엘리너 오스트롬과 샬럿 헤스(Charlott Hess)이 개발한 IAD(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프레임워크 분석 결과를 적용했다.

1> 독립 문예지의 모델에 ‘요인들’로서 구성하였다. 이 요인들의 ‘행동 영역’의 상호작용의 특징과 패턴을 만들어내며, 문학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 독립적 활동, 사용자 참여, 기술 적응과 미디어와 장르 융합 등의 ‘결과’를 형성한다.



<그림 1> IDA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독립 문예지 모델

행동 영역에서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운영되며, 창작자와 독자의 문학 플랫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웹진 디지털 기술 변화에 적극적이며, 문예지와 독자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준다.

결과들은 행동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패턴의 커뮤니티와 문예지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문학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 출판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 문예지를 통한 창작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 활성화와 독자의 편당·편집위원·기획 참여,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학습과 진화, 미디어와 장르의 융합과 개방 활동으로 독자 점점 확장 등의 성과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결과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성과의 여부와 정도는 요인들과 행동영역에 긍정적 피드백을 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한다. 독립 문예지들이 긍정적 성과를 얻어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소녀문학』은 2018년 4월에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활동 후에, 그리고 『젤리와 만년필』은 2018년에 10월에 3호를 내고 공식적 활동을 중단 중인 현상도 관찰된다.

## 5. 맺음말

새롭게 시작한 소형의 출판이나 문예지를 모두 독립 출판이나 독립 문예지로 분류할 수는 없다. 또한, 혁신성은 독립 문예지만의 고유한 속성이라도 보기 힘들다. 독자편집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창비의 『문학3』, 편집자들이 편집위원 역할을 하는 민음사

의 『릿터』, 젊은 작가들의 젊은 세대의 관심을 주제를 담는 문학과지성사 『하이픈』,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소설만을 은행나무출판사의 문예지 『악스트』 등의 사례처럼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실험적인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독립 문예지들은 전통적 문예지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 대해 학습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통적 문예지들은 독립 문예지들의 실험적인 활동 속에서 문예지의 원초적 모델과 미래의 과제를 찾을 수 있다. 독립 문예지 모델은 전체 문화로서의 문학 생태계의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문화이며 전통적 문예지와 대체 관계라기보다 대안과 공존을 통해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낳을 수 있는 관계이다.

독립 문예지의 특징과 패턴은 속성들과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플랫폼을 작동하는 데 있다. <그림 1>에서처럼 독립 문예지의 모델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문학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과 운영이 벌어지는 상호작용 행동영역에서 기술 변화에 적극 적응하는 독립 문예지 플랫폼으로서 작동시킨다. 이 플랫폼은 창작자와 평론가, 그리고 독자와 출판사가 문예지를 둘러싸고 관계를 형성하여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학 생태계의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속성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연구 문제 1).

첫째, 독립 문예지 현상은 문학 생태계 전체의 활동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 커뮤니티의 문화로서의 하위문화의 특징을 지닌다. 새롭게 시작된 소규모의 문예지이더라도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때

새롭게 시작된 문예지라고 해서 독립 문예지라고 부를 수 없다.

둘째, 독립 문예지는 문학 작품과 담론 가치를 통해 창작자와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참여하는 문예지 본연의 역할을 과제로 하고 있다. 문예지 본연의 역할에 기반한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의 정체성은 출판 자본으로 불리는 ‘문예지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단행본 출판에 활용하는 상업적 출판’의 대척점에서 출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닌다.

셋째, 독립잡지, 독립출판 등의 방식으로 발행되는 문예지나 등은 어느 정도 동인지의 형태를 취하지만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장에서 함께 하지 못한 독자와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로써 평가된다. 독자들을 단순한 향유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자리로 옮김으로써 독자의 폭을 확장시켜 새로운 문학 공론장(public sphere)을 재구성하고 있다.

넷째,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독자와의 관계 형성과 소통이라는 문예지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출판 자본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 문예지는 출판 위한 자본 운영, 동인 커뮤니티 구성, 문예지 기획, 창작, 생산 과정, 유통에 있어서 실험적이거나 독특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활동한다.

독립 문예지들은 언제나 성공적인 모델의 사례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판 자본과 문학 권력이라고 설명되는 전통적 문예지 모델을 넘어서는 혁신성을 보여준다. 작은 자본과 비용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업적 관계를 기반으로 독립 문예지를 출간하고 문학 커뮤니티 활동하기 때문에 종이책 문예지나 오프라인 행사나 모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원활한 디지

털 미디어, 전자책, 웹 등을 통한 디지털 퍼블리싱(digital publish)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미디어와 장르를 융합하는 실험적이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극적인 적응성을 지니고 활동하는 특징과 패턴을 보여준다. 이 특징과 패턴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새롭게 참여시키는 결과나 독립 문예지의 창간을 쉽게 만드는 체계로도 작용한다(연구 문제 2).

<그림 1>의 아랫부분에처럼 창작자와 독자의 플랫폼으로서의 독립 문예지라는 관점에서 문예지에 대한 정책, 웹과 모바일, IT기술과 다양하게 출현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산업적 변수로 작용한다. 플랫폼의 왼쪽의 콘텐츠 창작과 생산에서 창작자, 평론가, 동인, 출판사가 주체로서 참여한다. 플랫폼의 오른쪽에는 독자, 창작적 사용자, 창작자 예비생 등이 참여한다. 또한 장르와 미디어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체계이다.

문학 커뮤니티와 문예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관점에서의 정의와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문학 커뮤니티 또는 문예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문학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선행 연구에 기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다음 연구 과제로 제기된다.

출판 산업의 장기적 침체와 디지털 퍼블리싱 기반 콘텐츠 플랫폼의 활성화는 출판 자본이 주도하는 문예지들과 신생 문예지, 독립 문예지들에 높은 복잡성을 안겨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2019년 이후로 독립 문예지 활동은 더 다양하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 생태계의 관점에서 독립 문예지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 ■ 참고문헌

- 공병훈(2018). 제4차 산업혁명과 출판의 미래 모델 연구 : 기술 혁신 환경의 출판 모델과 적응. 『한국출판학회연구』 통권 제80호. pp.3-39.
- 공병훈·조정미(2018). 국내 디지털 퍼블리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출판학회연구』 통권 제83호. pp.5-41.
- 공병훈·조정미·이민우·김상훈(2018). 「문예지 지원사업 평가와 미래 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상훈(2017). 청년문화회 '부도심' "문학은 진실되어야 한다". 『뉴스페이퍼』, 2017.12.2.
- 유승호(2000). 문화산업에 있어 '인디' 공동체의 위상에 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제12집. pp.47-61.
- 이호선·김지면(2007).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진의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2호 제3권. pp.167-177.
- 장용호·공병훈(2012).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창작(collective creation) 과정에 대한 생태계적 모형 연구 : 온라인 커뮤니티 문장(Munjang)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9권 제3호. pp.163-218.
- \_\_\_\_\_ (2013). 디지털 출판 생태계와 출판사의 적응 전략 연구. 『한국출판학회연구』 통권 제65호. pp.167-194.
- 장용호·공병훈·조정미(2013). 『스마트 미디어 기반 잡지산업 성장 전략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정미·공병훈(2017). 뉴미디어 전자책 인터페이스 모델 연구. 『한국출판학회연구』 통권 제77호. pp.147-184.
- 최강민(2010). 독립 문예지의 의미와 가능성.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77호. pp.41-58.
- 최종혁(2011).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과 수정근거이론의 실제』. 서울 : 신정.
- 한송희(2019). 숫자로 알아보는 2019년 신춘문예, 『뉴스페이퍼』, 2019.2.10.



- Edgar, A., Sedgwick, P. (2007). *Cultural Theory: The Key Concepts*, Routledge.
- <http://mirrorzine.kr> 『거울』 웹진. (접속일자: 2019.1.8.)
- <http://gongjeon.com> 『모티프』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2.)
- <http://munhak3.com> 『문학3』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2.)
- <http://www.munhwada.net> 『문화 다』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2.)
- <http://omnipoeetry.com> 『세상의 모든 시집』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10.)
- <http://sonyeomunhak.com> 『소녀문학』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10.)
- <http://textreet.net> 『텍스트릿』 홈페이지. (접속일자: 2019.1.2.)
- <https://blog.naver.com/kitchentablewriting> 『영향력』 블로그. (접속일자: 2019.1.10.)
- <https://www.facebook.com/the.yueum> 『젤리와 만년필』 페이스북 페이지. (접속일자: 2019.1.2.)
- <https://www.facebook.com/begaeda> 『베개』 페이스북 페이지. (접속일자: 2019.1.10.)
- <https://tumblrbug.com> 텀블벅(tumblrbug). (접속일자: 2019.1.15.)
- Ostrom, E., Hess, C., (Eds.). (2011).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The MIT Press.
- Yin, R. K. (2008).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attributes and model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in Korea in 2018**

Kong, Byoung Hun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Video Advertising,  
Hyupsung University)

Lee, Min Woo

(CEO, NEWSPAPER)

The literary and art paper ecosystem is a system in which creators, critics, and readers and publishers form relationships around literary magazines and interact through literary works and discourse. This paper studies the attributes, activity features, patterns and models of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have the identity of literary communities and literary magazines as

subcultures of convening groups. Second, Appear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literary and publishing capital-based literary magazines, it acts as an operation centered on creators and readers, and is original in the mode of capital, planning,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ird, they are active in adapting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environments, including communication through webzines and social media, and expanding their own contacts through genre and media convergence. Fourth, independent literary magazin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community and literary magazine identity, creators and independent of publishing capital. readership, capital, planning, creative produc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yle, and adaptability to technological change, and operate with spontaneous activities of various participants, thus activating the literary ecosystem as a model of active literary platform for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key words : Independent Literature Magazine, Subculture, Literature Platform

최초투고일자 : 1월 28일

논문심사시간 : 2월 1일 ~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월 26일